

“전라도 사투리 비장미 끌어낼 것”



◀오는 4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맥베스 411’ 기자 간담회가 지난 25일 전당에서 열렸다. 김희정 전당 공연사업본부장, 이해제 연출가, 안석환 배우, 김윤규 안무감독, 박운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왼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

사투리로 만나는 연극 ‘맥베스 411’ 연출 이해제·주연배우 안석환 인터뷰

‘배신, 권력, 음모, 정의, 인류애.’ 세익스피어의 명작 ‘맥베스’는 초연된 지 400여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상연되는 명작이다.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인간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 보는 작품의 진정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맥베스’가 이번에는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립극단이 공동 제작하는 ‘맥베스 411’(4월 14~16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로 전당이 진행하는 지역협력형사업이다. ‘411’은 맥베스가 초연된 지 411년째라는 의미다.

지난 25일 전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연출을 맡은 이해제 연출가와 각색, 주연으로 참여하는 배우 안석환, 박운모 광주시립극단 감독, 김희정 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세익스피어의 ‘맥베스’에는 배신, 탐욕, 음모, 정의 등 인간의 모든 게 담겨 있다. 수백년 전 이야기지만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하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사투리 회화화 경계 최대 가변형 극장 활용”

지역 출신 배우 오디션 13명 선발…내달부터 연습

전당·시립극단 공동제작 4월 14~16일 공연

다룬 이야기라 보편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이해제 연출은 “이번 연극은 서양의 옷을 억지로 끼워 입은 듯한 작품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중견 배우 안석환의 제안에서부터 출발했다. 연극 ‘남자 총동’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전라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던 그다.

“연기자로서 실력을 해 보는 작품이기도 하다. 왜 번역극은 다 표준말로 연기해야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많았다. 지역에

서 제작돼 서울로 올라오는 작품들도 다 표준말 일색이다. 지방 특색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안씨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 나를 포함한 배우들 모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라며 “이번 작품은 전라도 사투리와 소리의 고저까지도 몸과 음으로 표현하기 위해 음악감독과 안무감독이 함께 작업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특히 염두에 둔 건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각인된 사투리의 회화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투리하면 떠올리는 회화화를 경계하려 한다. 인물의 비장미와 사투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비장미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남도의 정서다. 사투리가 갖고 있는 비장미를 잘 끌어내면 결코 인물이 회화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이해제)

현재 지역 배우 윤희철씨가 ‘살아있는’ 전라도 사투리로 재운색을 진행했으며 이해제 연출이 인물관계 등을 분석하며 재구성 작업을 거쳤다.

‘맥베스 411’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변형 극장을 활용한 무대 미학이다.

“공연장을 처음 봤을 때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다. 극장의 특성과 매카니즘을 잘 활용해 맥베스의 장면 장면과 정서들이 비주얼적인 측면을 넘어 극장과 잘 결합하는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이해제)

제작진은 가변형 극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대 미술적인 관점을 넘어 배우들의 움직임까지 끌어내는 역할을 할 김윤규 안무감독을 섭외했다. 최근 춤극으로 ‘맥베스’를 무대에 올렸던 김씨는 “전라도 사투리 버전의 대사와 함께 말투와 소리의 높낮이, 강약 등도 움직임으로 풀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에는 작품에 참여할 지역 배우 오디션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안무감독이 즉석에서 공개한 안무를 단시간에 연습해 오디션에 참여했으며 자유·지정 연기, 특기 등을 선보였다. 광주 전남북에서 모두 40여명이 참여한 오디션에서는 모두 13명이 선발됐으며 2월 중순부터 광주에서 집중적인 연습에 들어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음악의 미래를 엿보다

광주음악협회 신인음악회…내달 9일 유·스퀘어 문화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음악협회(회장 김유정)가 광주 음악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인음악회’를 연다. 2월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음악회 출연진들은 지역 5개 대학(광신·광주·전남·조선·호남신학대) 음악과의 2월 졸업 예정자 중 전공실기가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구성했다.

첫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오세라씨가 베토벤 ‘32개의 변주곡 다단조’를 연주한다. 이어 소프라노 이윤희씨가 카탈라니의 오페라 ‘라 발리’ 중 ‘그렇다면 나 멀리 떠나리’를, 제56호 남예술제

은상을 수상한 플루트 이슬비씨가 뒤티외의 ‘소나티네’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소프라노 조주은씨는 베르디 오페라 ‘리콜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을, 유승아씨는 ‘가면무도회’ 중 ‘내가 죽기 전에’를 부른다. 테너 이태성씨는 토스티의 가곡 ‘최후의 노래’를 선사한다.

그밖에 원성현(바이올린)씨는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피아니스트 김은미씨와 최하영씨는 각각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3번 가단조’와 ‘소나타 7번 내림나장조’를 연주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25-3144. /김미은기자 mekim@

국립나주박물관 ‘청정바다의 섬 완도’ 강좌

내달 2일

9일 현지답사

40명 모집



▶완도 장도

완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나주박물관이 2월 2일(오후 2시) 특별강좌에 이어 9일 완도 현지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완도군·(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와 공동 주최한 특별전 ‘청정바다의 섬 완도’(2월19일까지) 연계 프로그램이다.

특별 강연회는 완도 역사문화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사건을 주제로 삼았다. 강봉룡 목포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완도와 장보고’를 주제로, 장보고의 중국활동, 청해진 건설과 위상 등 완도의 고대사를 들려줄 예정이다. 지리적 특징과 중요성, 역사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두번째 강연은 홍영기 순천대 교수가 주제 ‘완도사람들의 항일독립운동-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나라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제강점기 체계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완도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다.

지역민 참여 답사는 완도 장도의 청해 진유적과 고산 윤선도가 머물렀던 보길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답사모집인원은 40명이며, 참가희망자는 2월2일 특별강연회에서 우선 접수 받을 예정이다. 잔여 인원은 추후 전화로 접수 받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원이다. 강연회는 무료 참여다. 문의 061-330-7829. /김용희기자 kimyh@

광주배우협회 “지방 연극인들은 들러리”

‘맥베스 411’ 불참…“지역·타지역 배우·스텝 협업 원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4월 무대에 올리는 ‘맥베스 411’를 둘러싸고 일부 지역 배우들이 반발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광주배우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연은 광주 연극인들이 아닌, 타 지역 연극인들의 들러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협력형 사업의 목적인 지역 예술인 육성과 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맥베스 411’ 공연에 불참한다”고 주장했다.

‘맥베스 411’은 전당 지역협력형 사업에 따라 광주시립극단과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다. 배우 안석환씨의 제안으로 시

작된 작품은 전라도 사투리로 진행되며 지역 배우들을 대상으로 우선 오디션을 진행해 배우를 선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우협회는 주인공 맥베스(안석환)와 레이디 맥베스 등 일부 배역이 서울 배우로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디션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접수했던 일부 배우들은 지난 25일 진행된 오디션에 불참

했으며 응시한 배우들은 협회를 탈퇴했다.

이기인 배우협회장은 “시립극단은 기존에도 지역과 달리 서울 배우들은 오디션 없이 선발해왔고 전당의 작업들에서도 지역 연극인들이 얼마나 존중받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운모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은 “시립극단은 원래 객원 배우·연출 시스템

로 진행하는 터라 지역 배우들이 중앙의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하며 많은 것을 서로 배워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몇몇 배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배우들로 우선 오디션을 진행, 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당 관계자는 “지역협력형사업은 이번 연극을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으로 지난 8월부터 준비한 올 사업안에도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는 많은 사업을 기획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 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